

# 해외연수 미뤄졌으니 연찬회라도...북구의회 '눈총'

### 오는 29일-내달 1일 부산서...당초 7-11월서 앞당겨 '타지 교육' 불필요 지출...“일정·시기 등 부적절” 비판

이달 하순께 '해외연수'를 가려다 '22대 총선 후 외유성' 등의 논란이 일자 하반기 연기를 결정했던 광주 북구의회가 비슷한 시기에 '의원 연찬회'를 가기로 해 눈총을 사고 있다.

24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부산시 일원에서 '의정활동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의원 연찬회를 진행한다.

참여 인원은 북구의원 20명 전원과 북구의회 사무국장, 의회 교육지원팀 4명 등 총 24명으로 예정됐다.

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세워진 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부문 1천600만원과 공무원 예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 등 총 2천280만3천원이 소요된다.

이번 연수로 1년치 민간위탁 예산 90% 이상이 사용되나, 일정을 보면 지출의 적절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박3일 중 강의를 ▲광주 북구 예·결산 및 추경 심사법 ▲자기이해(MBTI)를 통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광주 북구 행정사무감사 분야 직무교육 등 총 3차례 9시간인데, 각각의별 강사 섭외와 교보재 구매에 쓰는 비용이 장소 대관에 드는 예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해당 강의를 관내에서도 가능한 것들이다. 굳이 부산까지 가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이냐. 불필요한 지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 북구의회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초청해 본회의장에서 예·결산 및 추경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둘째 날 일정한 '지역특성화사업 성공 사례 비교견학'도 북구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일정은 '동백섬 수변경관 조성사업 비교견학', '부산 해안경관개선사업 비교견학' 등으로 짜여졌는데, 성공 사례를 배워 온다고 한들 내륙인 광주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없다.

연찬회 시기 조정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북구의회 의원 과반 이상은 이달 하순께 미국 또는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가려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무리한 의사일정 조정'이라는 비판과

외유성 논란에 하나둘씩 연수 참여를 포기하면서 결국 지난 2월 하반기로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 8-9일 북구의회 의원 전원은 올해 7-11월로 예정됐던 연찬회를 해외연수 일정이 계획됐던 이달 하순에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연찬회 일정을 앞당긴 데 대해 정달성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28회 임시회 중 추경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관련 교육을 듣고 동료 의원과 '의기투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로 골랐다"고 설명했다.

김행수 북구의장은 "골9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6

월에 예정된 것 등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과 달리 북구의회 안팎에선 "총선 후 가지 못하게 된 해외연수 대신 국내에서라도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심산이 나타나고 있다.

의회의 한 공직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려고 해도 부실한 일정을 보면 해외연수를 두고 시끄러웠던 분위기가 잠잠해지자 어떻게든 타지역으로 나가 보기 위해 연찬회를 급하게 당겨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찬회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시기와 일정이 부적절하다 보니 비판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 오월 단체들 올해도 행사위 불참... '반쪽짜리 5·18'

### '2·19 대국민공동선언 사과' 등이건...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무색

오월 공법 3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와 시민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란 44주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24일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와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오월 공법 3단체)에 따르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부상자회는 집행부 구성 등 단체 정상화가 먼저라는 이유로, 공로자회는 행사

위의 '2·19 대국민공동선언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발, 유족회는 다른 두 공법단체가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 참여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세 단체 모두 정부 주관의 기념식은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순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달 안에 오월 공법 3단체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며 "행사위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 기사의 날

이내 부활제 같이 공법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손길을 보탬 일이 있으면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상·공로자회의 행사위 참여 전제 조건으로 '2·19 대국민공동선언 사과'를 고수하고 있어 만나더라도 화합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윤남식 공로자회 회장은 "전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 광주·전남 사·도민도 아닌 행사위에 사과할 이유는 없다"며 "기념행사를 공법단체가 아닌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치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주성학 기자



**아동 인권 퍼포먼스**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 문흥동 솔로몬파크 저스틴스홀에서 열린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 '함께하는 인권 교육'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북구청 직원들이 손타월을 들고 아동 인권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 내달 2일 발표

5·18민주화운동 정신 선양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2024 광주인권상' 수상자가 다음달 2일 발표된다.

24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재단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2024 광주인권상 수

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시상식은 5월 18일 재단 내 민주홀에서 개최되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시상금 5만 달러가 수여된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6-9월 공모 및 접수 진행, 아시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유럽 등 총 11개국에서 개인·단체 포함 총 23개 팀이 접수했으며 올해 개인 1명이 수상자에 이름이 올랐다.

광주인권상은 2010년 제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27개국 27명과 9개 단체에 수여됐다.

재단은 올해 시상식에 시민 508명을 초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광주민주포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사전 등록을 받는다. /주성학 기자

## 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룡' 60대 항소심도 실행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오월 공법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련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안재영 기자

부상자회 전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1주일 전 A씨는 공탁을 했는데, 검찰은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 광주 도심 카페 승용차 돌진...40대 은행원 치료 중 숨져

대낮 광주 도심 카페를 승용차가 들치면서 중상을 입은 40대 은행원이 사고 6일만에 결국 숨졌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 5분께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6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돌진해 은행원 A(40대)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해당 카페에서 동료 3명과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차에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증상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뒤 중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동료 B(60대)씨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카페 종사자 3명, 은행 직원 4명 등 총 8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과수에서 차량 감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은정 기자

## 레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사망

30대 아들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경찰이 손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으나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께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 A(60대)씨에게 테이저건을 쏘 제압,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말에 불응하며 아들을 지속 위협했다.

제압된 A씨는 북부경찰서로 압송됐는데,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 30분께 사망했다. /안재영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하는 기희도시 광주

##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 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지원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